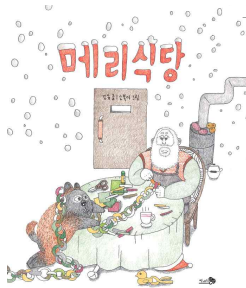


메리식당

글 김유 | 그림 소복이 | 출판사 천개의바람

판형 215*262(양장) | 페이지 40쪽 | 가격 14,000원



아무도 고슴도치 씨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눈을 뽕족하게 뜨고, 말에 가시가 있다고들 했지요. 하지만 사실은 고슴도치 씨가 겁이 나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였어요. 눈 내리는 어느 날, 고슴도치 씨는 빨간 풍선을 따라 낚선 ‘메리식당’에 들어갑니다. 산타클로스를 닮은 식당 할아버지가 고슴도치 씨를 다정하게 맞이해 주어요. 그 뒤로는 하나의 테이블에 여러 손님이 앉아 있었지요. 고슴도치 씨는 빈자리에 어색하게 앉습니다. 그리고 오므라이스를 주문하지요. 시간이 지나 식당 할아버지가 눈사람 그릇에 담은 오므라이스를 가져옵니다. ‘마음을 안아 주는 오므라이스’라고 설명하지요. 고슴도치 씨는 조심스레 한 입 먹습니다. 그러자 잊고 지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과연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독서 활동 목표 : 내 마음을 올바르게 표현하기

● 그림책을 맛있게 꿀꺽! ●

◆ 표지 맛보기

- 1) 메리식당에서는 어떤 음식을 팔 것 같나요?
- 2) 내가 메리식당에 간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말해 보세요.



◆ 본문 삼키기

- 1) 그림처럼 식당에 갔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생각하고 말해 보세요.
- 2)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식당을 보고, 주인이 누구일지 상상해서 말해 보세요.
- 3) 메리식당에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누구랑 왜 가고 싶은지 말해 보세요.

◆ 이야기 소화시키기

- 1)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면 어떨 것 같나요?
어떤 기분일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은지 생각하고 말해 보세요.
- 2) 싫은 사람과 마주쳤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나만의 방법을 상상해 보고 말해 보세요.